

『御製秘藏詮』大藏經 板本の 文字異同과 校勘*

A Difference of Letters, Comparison, and Modification
for the Panbon of Tripitaka, *Eojebijangjeon*

柳 富 鉉 (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御製秘藏詮」의 文字異同 |
| 2. 「御製秘藏詮」의 大藏經 板本 | 類型과 그 原因 |
| 3. 「御製秘藏詮」의 文字異同에
대한 校勘 | 5. 結 言
<참고문헌> |

< 초 목 >

본 연구는 『御製秘藏詮』 21卷(부록 포함 21권)의 大藏經 板本을 조사 분석한 다음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또는 開寶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을 상호 대교하여 이들 大藏經 板本에 나타나는 文字異同을 校勘하고, 이 文字異同에 대한 類型과 그 原因을 규명한 것이다. 그 결과 『御製秘藏詮』 初雕藏本の 文字異同은 거의 대부분 趙城藏本(開寶藏 修訂本의 覆刻本)과 일치하는 開寶藏의 수정된 문자이었고, 『御製秘藏詮』 再雕藏本の 文字異同은 상당수가 수정되지 않은 開寶藏 원래의 문자이었다.

要語: 어제비장진, 대장경, 초조장, 개보장

* 이 論文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327-A00203).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10년 12월 3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In order to help understand better the base edition of Tripitaka, this study examined *Eojebijangjeon* in 21 volumes, including the supplements, which commonly appeared in three different editions of Tripitaka, that is, Josungjang-bon(or Gaebojang-bon), the reproduction of *Tripitaka Kai bao*, Chojojang-bon, and Jaejojang-bon. The differences in letters of these three editions of *Eojebijangjeon* are compared and the types and causes for those differences or errors are analyzed in this study.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t letters of Chojojang-bon of *Eojebijangjeon* corresponded mostly with those of Josungjang-bon which contained the modified letters from *Tripitaka Kai bao*. And the differences of letters in Jaejojang-bon of *Eojebijangjeon* largely represented the original letters of *Tripitaka Kai bao*, not modified.

Key words: Eojebijangjeon, Tripitaka, Chojojang, Tripitaka Kai bao

1. 緒言

『御製秘藏詮』은 북송 태종이 불교의 깊은 뜻을 읊은 偈頌集이다. 여기에는 卷마다 50首의 偈頌이 20권에 걸쳐 총 1,000首의 계송이 실려 있다. 이 經典은 처음에 開寶勅版大藏經(이하 『開寶藏』으로 약칭함)에 入藏되어 유포되었고,¹⁾ 이후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에도 수록되어 세상에 유통되었다.²⁾ 高麗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御製秘藏詮』이 간행되었다. 이른바 『初雕大藏經』(이하 『初雕藏』으로 약칭함)과 『再雕大藏經』(이하 『再雕藏』으로 약칭함)에 수록되어 유통된 것이다.³⁾

한편, 『再雕藏』과 『初雕藏』의 底本에 대해서 그간 국내외 학계에서는 이론이 분분하였다.⁴⁾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조장』은 『開寶藏』, 『契丹藏』, 貞元入藏諸經論, 宋新譯經論, 國內傳本 등을 수용하였으되 登梓本을 마련하여 刊刻한 것이고, 『재조장』은 대부분 『초조장』의 本문을 수정한 다음 이를 覆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그러나 이와 같은 인식은 사실 『再雕藏』과 『初雕藏』의 底本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확실한 근거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 채, 간접적이고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적인 주장으로 일관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再雕藏』과 『初雕藏』의 底本에 대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연구 중의 하나가 바로 『再雕藏』과 『初雕藏』 그리고 『開寶藏』과의 對校를 통한 校勘學的 분석이다. 그런데 현재 開寶藏本(또는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이 모두 전존되고 있는 大藏經의 經典은 『御製秘藏詮』 20卷(부록 포함 21권)이

-
- 1) 『開寶藏』은 開寶 4년(971)에 그 雕造가 시작되어 太平興國 8년(983)에 완료되었다.
 - 2) 『趙城藏』은 1149년(金 皇統 9年, 南宋 紹興 19年)에 雕造를 시작하여 1173년(金 大定 13年, 南宋 乾道 9年)에 완성되었다.
 - 3) 『초조장』은 高麗 顯宗 2년(1011)부터 宣宗 4年(1087)까지 雕造되었고, 『재조장』은 高麗 高宗 23年(1236)부터 38年(1251)까지 雕造되어 그 經板이 현재까지 海印寺에 남아 있다.
 - 4) 여기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은 筆者의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120쪽)를 참조바람.
 - 5)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査研究』(서울: 財團法人 成保文化財團, 1988), 15.; 高麗大藏經研究所, 『南禪寺藏 高麗版 『初雕本大藏經』 調査完了 報告會 資料集』(2010), 35, 40.; 김은미, “『전정문경』에 대한 고찰,” 『書誌學會』 『書誌學研究』 45집(2010), 323.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御製秘藏詮』 20卷(부록 포함 21권)의 大藏經 板本으로서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또는 開寶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을 상호 대교하여 이들 大藏經 板本에 나타나는 文字異同을 조사하여 校勘하고, 이 文字異同에 대한 類型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현재 『御製秘藏詮』은 開寶藏本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제13권 한 권뿐이고, 開寶藏本의 覆刻本인 趙城藏本은 제2, 4, 10, 12, 13, 15, 17권을 제외한 全卷이 중국의 國家圖書館에 진존되고 있다. 그리고 初雕藏本으로는 일본 南禪寺에 제17권을 제외한 제1권부터 제20권까지의 19권과 부록인 제21권을 포함하여 20권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1권부터 제10권까지와 부록인 21권을 포함하여 11권이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46)에 影印 수록되어 학계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再雕藏本은 全卷이 완전하게 진존되고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御製秘藏詮』 21권(부록 포함 21권) 가운데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또는 開寶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 등 세 본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 제1, 3, 5, 6, 7, 8, 9, 13, 21권(제21권은 부록에 해당됨) 등 총 아홉 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는 『초조장』과 『재조장』의 저본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端緒를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大藏經 板本 간의 底本 關係, 특히 『初雕藏』과 『再雕藏』 그리고 『開寶藏』의 상호간의 관계 및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물은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 검색시스템』의 “한글대장경”에 내재된 誤譯을 바로 잡는데도 자그마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高麗大藏經研究所, 『高麗初雕大藏經集成』 1-4(2005).

2. 『御製秘藏詮』의 大藏經 板本

2.1 『御製秘藏詮』의 編纂과 種類

『御製秘藏詮』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북송 태종(976-997)이 불교의 깊은 뜻을 읊은 偈頌集이다. 이 『御製秘藏詮』에는 卷마다 50首의 偈頌(게송 1수는 5言 4句로 이루어짐)이 20권에 걸쳐 총 1,000首의 게송이 실려 있다. 이 『御製秘藏詮』은 20卷本과 30卷本 두 종류의 板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表 1> 『御製秘藏詮』 第1卷의 卷首題의 內容

御製秘藏詮卷第一 總一千首共 二十卷并註 佛賦二首附 歌行一首附

이중 20卷本은 앞에 소개된 『御製秘藏詮』 제1권의 卷首題의 내용과 뒤에 제시된 『祥符錄』⁷⁾의 기록에서 파악되듯이, 端拱 元年(988) 12월에 56人이 註解를 한 다음 開寶藏에 編聯入藏된 『御製秘藏詮』 20卷과 附錄 1卷(『佛賦(御製佛賦)』·『歌行(詮源歌)』)인 것이다.

30卷本은 端拱 2년(989) 11월에 12人이 註釋을 한 다음 開寶藏에 編聯入藏된 御製類(御製秘藏詮幽隱律詩 4卷,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卷,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卷)가 추가되어 성립된 것이다. 이때 성립된 30卷本은 20卷本の 20卷을 30卷本の 第1卷~第20卷으로 구성하고, 20卷本の 附錄(『御製佛賦』·『詮源歌』)을 第21卷의 내용으로 편입시킨 다음 기타 御製類를 第22~30卷(第22~

7) 祥符錄은 北宋의 趙安仁, 楊億, 惟淨 등이 大中祥符 6년(1013)에 편찬한 목록인데, 現存本은 卷1, 2, 5, 9, 19, 21, 22 등이 缺失되었고, 卷6, 10 두 卷은 殘缺된 상태이다. 본 목록에는 太平興國 7년(982)부터 大中祥符 4년(1011)까지 新譯된 경전 및 宋 太宗의 御製 등 222部 413卷이 기재되어 있다.

25卷: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卷, 第26~29卷: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卷, 第30卷: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卷)으로 편제하여 성립된 것이다.⁸⁾

<表 2> 『大中祥符法寶錄』 第18卷의 記錄

<p>大中祥符法寶錄卷第十八</p> <p>… 我太宗皇帝 … 著心輪偈秘藏詮逍遙詠等歌詩凡五十七卷 既置於寶藏亦秘在名山 …</p> <p>蓮華心輪廻文偈頌 一十一卷</p> <p>秘藏詮 二十卷</p> <p>秘藏詮佛賦·歌行 共一卷</p> <p>秘藏詮幽隱律詩 四卷</p> <p>秘藏詮懷感詩 四卷</p> <p>秘藏詮懷感廻文詩 一卷</p> <p>逍遙詠 一十一卷</p> <p>緣識 五卷</p> <p>蓮華心輪廻文偈頌 一十一卷</p> <p>右此頌文 … 太平興國八年(983)成 是年三月 上遣 … 等二十人爲之注解 … 詔以其文編聯入藏</p> <p>秘藏詮 二十卷</p> <p>秘藏詮佛賦·歌行 共一卷</p> <p>右詮賦等端拱元年(988)十二月 上遣 … 等五十六人同爲之注解 … 詔以其文編聯入藏</p> <p>秘藏詮幽隱律詩 四卷</p> <p>秘藏詮懷感詩 四卷</p> <p>秘藏詮懷感廻文詩 一卷</p> <p>逍遙詠 一十一卷</p> <p>右詩什端拱二年(989)十一月 上遣 … 等一十二人同爲之注釋 … 詔以其文編聯入藏</p> <p>緣識 五卷</p> <p>右頌至道元年(995)三月中 詔下印經院 開板模印 編聯入藏</p>

그리고 이 30卷本은 咸平年間(998-1003)에 인출된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에 30卷本 『御製秘藏詮』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늦어도 咸平年間

8) 『御製秘藏詮』 30卷의 편제를 一見하면 다음과 같다.

제1권~제20권: 『御製秘藏詮』 20卷.

제21권: 『御製佛賦』·『御製詮源歌』 1卷.

제22권~제25권: 『御製秘藏詮幽隱律詩』 4卷.

제26권~제29권: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卷.

제30권: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卷.

(998-1003)이전에 성립된 것은 분명하다. 또한 『宋史·高麗傳』淳化 2年(991)條의 記事⁹⁾와 『高麗史·韓彥恭列傳』의 記錄¹⁰⁾에 韓彥恭이 宋나라에서 『御製秘藏詮』, 『蓮華心輪廻文偈頌』, 『逍遙詠』을 받아 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韓彥恭이 받아들인 宋太宗의 御製에는 『御製秘藏詮』의 第22~30卷에 해당되는 『御製秘藏詮幽隱律詩』,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韓彥恭이 宋에서 받아들인 『御製秘藏詮』은 이들이 포함된 30卷本 『御製秘藏詮』으로 추정된다. 이로 볼 때, 『御製秘藏詮』 30卷本은 『御製秘藏詮』 총 21卷(부록에 해당되는 제21권 포함)이 간행된 端拱 元年(988) 이후, 『御製秘藏詮』 22~30卷에 해당되는 기타의 御製詩가 刊行된 端拱 2年(989) 또는 30卷本 『御製秘藏詮』이 高麗에 전래된 淳化 2年(991)이전에 『御製秘藏詮』 21卷(부록 포함)과 기타의 御製詩 9卷이 合編되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御製秘藏詮』의 성립과 유통에 대해 현재 학계에서는 아래의 『佛祖統紀』의 기록에 근거하여 20卷本은 太平興國 8年(983)에 완성되어 近臣에게 宣示되었던 판본으로서 高麗에는 成宗 10年(991)에 印成藏經과 함께 導入된 것이고, 30卷本은 至道 2年(996)에 箋注가 가해져 再刊된 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¹¹⁾ 무엇보다도 『祥符錄』은 太平興國 7年(982)부터 大中祥符 4年(1011)까지 新譯된 경전 및 宋太宗의 御製 등 222部 413卷의 漢譯과 刊行에 대해 매우 상세한 實錄이 기재되어 있는 目錄書로서 1013년에 편찬된 것이다. 반면에 『佛祖統紀』는 일종의 佛敎史書이지만, 『御製秘藏詮』이 간행된 지 약 280년 뒤인 1269년에 저술되었고, 『御製秘藏詮』에 대한 기록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신빙성도 매우 떨어진다.

- 9) “韓彥恭來貢，彥恭表述治意，求印佛經。詔以藏經，并御製秘藏詮·逍遙詠·蓮華心輪，賜之。”
- 10) “韓彥恭 … 成宗時 … 如宋謝恩。宋以彥恭，儀容中度。授金紫光祿大夫檢校兵部尙書兼御史大夫。彥恭奏請大藏經，帝賜藏經四百八十一函凡二千五百卷。又賜御製秘藏詮·逍遙·蓮花心輪，還。”
- 11) 千惠鳳, “初雕大藏經의 現存本과 그 特性,” 成大大同文化研究院, 『大同文化研究』 제11집 (1976), 181.; 高麗大藏經研究所, 『南禪寺藏 高麗版 『初雕本大藏經』 調査完了 報告會 資料集』(2010), 105.

<表 3> 『佛祖統紀』 卷43의 記錄

『佛祖統紀』 卷43 太平興國八年 詔以御製蓮華心輪廻文偈 秘藏詮 逍遙詠宣示近臣 … … 至道二年 詔以御製秘藏詮二十卷 緣識五卷 逍遙詠十卷 命兩街箋注入大藏頒行
--

예를 들어 『佛祖統紀』에서는 至道 2년(996)에 『御製秘藏詮』 20권, 『緣識』 5권, 『逍遙詠』 10권 등에 箋注가 가해져 入藏 頒行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祥符錄』에서는 『緣識』 5권에 대해 箋注를 가했다는 내용은 없고 至道元年(995) 三月에 印經院에 조서를 내려 開板模印하고 編聯入藏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の 『緣識』 5권은 箋注가 가해지지 않은 正文本이다. 실제로 『緣識』 5권은 『祥符錄』의 기록처럼 箋注가 가해지지 않고 原文만 간행된 것이다. 그런데 『佛祖統紀』에서는 『緣識』 5권에 箋注가 가해진 것으로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즉 『佛祖統紀』에 기재된 『御製秘藏詮』에 대한 기록은 사료적 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佛祖統紀』의 기록에 근거한 『御製秘藏詮』에 대한 종래의 이해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御製秘藏詮』의 大藏經 板本

『御製秘藏詮』의 大藏經 板本으로는 현재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開寶藏本이 현재 전존되고 있다. 전존되고 있는 『御製秘藏詮』 大藏經 板本の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開寶藏本 『御製秘藏詮』 총 1권(美國 하버드大學校所藏本, 제13권)
- 2) 再雕藏本 『御製秘藏詮』 총 30권(高麗大藏經研究所의 高麗大藏經 印經本, 30권 全卷)
- 3) 初雕藏本 『御製秘藏詮』 총 20권(日本 南禪寺所藏本, 제17권과 제22~30권을 제외한 20권)

4) 趙城藏本『御製秘藏詮』총 20권(中國 國家圖書館所藏本, 제2, 4, 10, 12, 13, 15, 17, 24, 25, 26권을 제외한 20권), (趙城藏本の 제16권은 興國院本과 廣勝寺本 2종의 印本이 있다.)

현재 『御製秘藏詮』은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開寶藏本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포그미술관에 수장되어 있는 제13권 한 권뿐이고, 開寶藏本의 覆刻本인 趙城藏本은 제1권, 제3권, 제5~9권, 제11권, 제14, 16권, 제18권~20권, 제21권에 해당되는 부록 1권, 제22, 23권, 제27~30권 등 모두 스무 권이 중국의 國家圖書館에 收藏되어 있다. 그리고 初雕藏本으로는 일본 南禪寺에 제17권을 제외한 제1권부터 제20권까지의 열아홉 권과 부록인 제21권을 포함하여 스무 권이 소장되어 있고, 再雕藏本은 全卷이 完전하게 存존되고 있다.

한편 『御製秘藏詮』은 南宋 大藏經(『崇寧藏』, 『毗盧藏』, 『圓覺藏』, 『資福藏』)에도 入藏·刊行은 되었지만,¹²⁾ 지금 存존되고 있는 것은 全무한 상태이다. 存존하고 있는 『御製秘藏詮』의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開寶藏本은 모두 988년(端拱 元年)에 간행된 開寶藏 『御製秘藏詮』 20권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다.

3. 『御製秘藏詮』의 文字異同에 대한 校勘

『御製秘藏詮』 21권(부록 포함 21권) 가운데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또는 開寶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 등 세 본의 상호 대조가 가능한 제1, 3, 5, 6, 7, 8, 9, 13, 21권 등 총 아홉 권의 경전에서 조사된 文字異同은 총 68件이다. 이제부터는 이들에 대한 校勘을 진행하고자 한다(단, 제13권의 교감에는 初雕藏本, 再雕藏本과 開寶藏本이 이용되었다). 文字異同에 대한 교감을 진행하면서 사용된 對校字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① [非(揀)]: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

12) 童瑋編, 『二十二種大藏經通檢』(中華書局, 1997), 420.

② [苒(蔺)(苒)]: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

3.1 御製秘藏詮 제1권

(1) 粵聞詮源秘旨 <…『攝論』云, 無不從此法界流, 無不還歸此法界, 詮斯秘旨是曰[爲(如)]源.>¹³⁾

校勘: ① 이 對校字 [爲(如)]는 再雕藏本에 ‘爲’로 되어 있고, 初雕藏本·趙城藏本에는 ‘如’로 되어 있다. ② 再雕藏本の ‘爲’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如’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참고로 본고에서 언급된 “開寶藏本(初本)”은 개보장의 經板이 刻成된 초기에 인출된 開寶藏本을 의미하고, “開寶藏本(修訂本)”은 개보장의 經板이 刻成된 후 修訂·補刻되어 인출된 開寶藏本을 의미한다.¹⁴⁾

(2) 智易三乘 <智者佛眞智也. 『法華經』云 … 乃云 如[波(彼)]長者初以三車 誘引諸子, 然後但與大車, 寶物莊嚴, 安隱第一. …>

校勘: ① 이 對校字 [波(彼)]는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¹⁵⁾에 ‘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彼’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波’는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13) 이 내용의 출처는 본고 제4장의 文字異同 對校表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동일하다.
14) 주지하듯이 再雕藏本, 初雕藏本, 趙城藏本은 모두 開寶藏을 바탕으로 해서 간행된 것이다. 그리고 開寶藏은 몇 회에 걸쳐 修訂되었으며, 趙城藏은 咸平年間(998-1003)에 수정된 開寶藏 修訂本の 覆刻本으로 알려져 있다(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彙編』上(1977), 201). 그런데 필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再雕藏本, 初雕藏本, 趙城藏本の 文字異同 가운데 開寶藏 原來的 문자와 修訂된 문자로 판단되는 文字異同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開寶藏의 수정되지 않은 원래의 문자로 되어 있는 開寶藏本을 “開寶藏本(初本)”으로 설정하여 지칭하고, 開寶藏의 수정된 문자로 되어 있는 開寶藏本을 “開寶藏本(修訂本)”으로 설정하여 지칭한 것이다.

15) 『妙法蓮華經』 第2卷.
“如[彼]長者初以三車, 誘引諸子, 然後但與大車, 寶物莊嚴, 安隱第一.”

‘彼’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3) 賢愚俱臻於萬彙<…『楞嚴經』… 又云咸是妙明眞心中物, 顯[甚(其)]眞法
普周法界也.>

校勘: ① 이 對校字 [甚(其)]는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
本の ‘其’가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② 再雕藏本の ‘甚’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
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其’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
(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추정된다.

(4) 法相互陳 <法者法性, 相者事相. 以執相者, 謂性有名種. 滯性者, 謂相有
殊途. 今[此(此)(比)]互陳, 卽一眞矣. …>

校勘: ① 이 對校字 [此(此)(比)]는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
雕藏本の ‘此’가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② 再雕藏本·初雕藏本の ‘此’는 개보장
본래의 문자이고, 趙城藏本の ‘比’는 오류로 추정된다. ③ 한편, 再雕藏本·初雕
藏本の ‘今此’와 趙城藏本の ‘今比’는 이 내용 중에서 ‘지금’의 뜻으로 사용되었
고, ‘今此’¹⁶⁾와 ‘今比’¹⁷⁾는 모두 ‘지금’의 뜻을 갖고 있다. 때문에 ‘今此’와 ‘今比’는
同意詞로 볼 수 도 있겠다.

(5) 覺焰之燈長明 <…『華嚴經』云 又放光明, 名[養(慧)]燈, …>

校勘: ① 이 對校字 [養(慧)]는 出處인 『華嚴經』의 原文¹⁸⁾에 ‘慧’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慧’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養’
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16) 『大乘中觀釋論』第9卷.

“今此如是證成.”

17) 『大寶積經』第85卷.

“今比佛神通.”

18) 『大方廣佛華嚴經』第7卷.

“又放光明名[慧]燈, 彼光覺悟一切衆, 諸法空寂無生滅, 解達非有亦非無, 譬如野馬
水月形, 亦如幻夢鏡中像, 諸法無主悉空寂, 因是得成慧燈光.”

‘慧’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6) 幽闇之室恒顯 <無明三界, 喻如闇室, 覺燈普照, 所以光顯. 『楞嚴經』云 意如幽室見,¹⁹⁾ 謂昏[明(昧)]也. 言恒顯者, 心開意解證法光明. 『金剛經』云 如人入闇, 則無所見. 又云, 如人有目, 日光明照, 見種種色, 卽常顯也.>

校勘: ① 이 對校字 [明(昧)]는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昧’가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② 再雕藏本の ‘明’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昧’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7) 是非身法相<…『瑜伽論』云 在纏名如來藏, 出纏號[大法身(法大法身)] …>

校勘: ① 이 對校字 [大法身(法大法身)]은 『御製秘藏詮』第1卷 및 『圓覺經類解』 등에 기재된 “出纏號大法身”의 용례²⁰⁾로 볼 때, 再雕藏本の ‘大法身’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원래 再雕藏本の 底本인 開寶藏本에 初雕藏本·趙城藏本과 동일하게 ‘法大法身’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재조장본에서 ‘大法身’으로 修訂된 것이다. 이 修訂의 흔적은 字數의 형태에서 확인된다. 다시 말해서 初雕藏本·趙城藏本에는 ‘大法身’이 雙行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재조장본에는 앞 행에 있었던 그 앞 글자인 ‘法’이 삭제되면서 ‘大’가 앞 행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法身’ 두 글자가 單行으로 수정 기재된 것이다. 만약 재조장본의 이러한 字數의 형태가 수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法身’ 두 글자는 單行이 아니라 註釋의 전형적인 형태인 雙行으로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8) 殊勝若何爲 <…『法華經』云 殊[特(特)(持)]妙好, 如天樹王.>

校勘: ① 이 對校字 [特(特)(持)]는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²¹⁾에 ‘特’으로 되어

19) 『楞嚴經』第4卷.

“因名思, 如幽室見浮根四塵, 流逸奔法.”

20) ① 御製秘藏詮 第1卷(第1張 第4行): “『勝鬘經』云 在纏名如來藏, 出纏號[大法身].”

② 圓覺經類解(卍新纂續藏經 第十冊 No.252, p0178c02456): “出纏號[大法身].”

있다. 따라서 再雕藏本·初雕藏本の ‘特’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趙城藏本の ‘持’는 誤刻으로 추정된다.

(9), (10) 撈月海中迷 <…『金剛頌』云 猿猴探水月, [萇(萇)(萇)]若拾[苞(花)]針.>

校勘(9): ① 이 對校字 [萇(萇)(萇)]은 再雕藏本·初雕藏本에는 ‘萇’으로 되어 있고 趙城藏本에는 ‘萇’으로 되어 있는데, 同字²²⁾의 관계이다. 한편 『金剛經宗通』에는 ‘萇’²³⁾으로 되어 있다. ② 앞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萇’은 開寶藏本 본래의 문자이고, 趙城藏本の ‘萇’은 開寶藏本에서 수정된 문자로 추정된다. ③ 그렇다면 趙城藏本の 저본(개보장)은 初雕藏本の 저본(개보장)보다 한층 더 수정된 개보장으로 생각된다.

校勘(10): ① 이 對校字 [苞(花)]는 『金剛經宗通』에 ‘華’²⁴⁾로 되어 있다. 그리고 “花針”은 刺繡用 細針이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花’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苞’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花’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11) 一善性中得 <沈一念心通三種性, 隱於毫[木(末)], 善乃得中. …>

校勘: ① 이 對校字 [木(末)]은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末’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木’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오류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末’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21) 『妙法蓮華經』第1卷.

“殊[特]妙好, 如天樹王, 其華開敷.”

22) 『本草綱目』.

“萇若, 一作萇蕩(→石). 其子服之, 令人狂狼放宕, 故名.”

23) 金剛經宗通(卍新纂續藏經 第二十五冊 No.471, p0016b12).

“既掩菩提相, 能障涅槃心, 猿猴探水月, [萇]蕩(→石)拾[華]針.”

24) 金剛經宗通(卍新纂續藏經 第二十五冊 No.471, p0016b12).

“既掩菩提相, 能障涅槃心, 猿猴探水月, [萇]蕩(→石)拾[華]針.”

(12) 能破諸煩惱 <諸煩惱障, 四智能斷, 習氣自絕, [退(退)(通)]達法性. 唯識論云 由斷續生煩惱, 證真解脫.>

校勘: ① 이 對校字 [退(退)(通)]은 『大般若波羅蜜多經』 등에 기재된 “通達法性”의 용례²⁵⁾와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趙城藏本の ‘通’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앞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退’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 원래의 文字이고, 趙城藏本の ‘通’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の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③ 그렇다면 趙城藏本の 저본(개보장)은 初雕藏本の 저본(개보장)보다 한층 더 수정된 開寶藏本으로 추정된다.

(13) 不如休去住 <執相修真, 徒施功行, 忘言悟旨, 條然[住(經)(任)]眞. …>

校勘: ① 이 對校字 [住(經)(任)]은 再雕藏本에 ‘住’로, 初雕藏本에는 ‘經’으로, 趙城藏本에는 ‘任’으로 되어 있다. ② 初雕藏本の ‘經’은 開寶藏本 본래의 문자이고, 趙城藏本の ‘任’은 開寶藏本에서 수정된 문자이며, 再雕藏本の ‘住’는 再雕藏本에서 수정된 문자로 추정된다. ③ 그렇다면 趙城藏本の 저본(개보장)은 初雕藏本の 저본(개보장)보다 한층 더 수정된 開寶藏本으로 추정된다.

(14) 頓減苦纏絲 <一切衆生第八識中, 有此大乘菩提種性, 纏絲煩惱, 漸漸輕微, 不覺[超(超)(起)]凡, 自然入聖. …>

校勘: ① 이 對校字 [超(超)(起)]는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超’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趙城藏本の ‘起’는 誤刻으로 보인다. 사실 趙城藏本 板本上에 보이는 ‘起’는 그 자형이 ‘起’字로서의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이다.

25) 『大般若波羅蜜多經』第506卷: “通達法性即得自在”

『大方廣佛華嚴經』第74卷: “通達法性廣大無際”

『大智度論』第35卷: “復有二法, 一者常住禪定, 二者通達法性.”

3.2 御製秘藏詮 제3권

(15), (16) 不解莫通風 <理本顯然, 解[非契道, 性廓徹實(非契實, 道性廓徹)], 事無不通. …>

校勘: ① 이 對校字 [非契道, 性廓徹實(非契實, 道性廓徹)]은 經典에 기재된 “契實”²⁶⁾과 “廓徹”²⁷⁾의 용례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解非契實, 道性廓徹”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② 再雕藏本の “解非契道, 性廓徹實”은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본래 내용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解非契實, 道性廓徹”은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내용으로 추정된다.

(17) 圓淨如明月 <萬德咸備, 衆垢都寂, 如月朗照, 不[非(揀)]淨穢. …>

校勘: ① 이 對校字 [非(揀)]은 다른 經典에 기재된 “不揀淨穢”의 용례²⁸⁾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揀’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非’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揀’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18), (19) 心傳五印文 <…『法華經』云 我等於如來滅後, [無非(周旋)]往返十方世界, 能令衆生書寫此經.>

校勘: ① 이 對校字 [無非(周旋)]은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²⁹⁾에 ‘周旋’으로

26) 『佛心經品亦通大隨求陀羅尼』上卷.

“童子答言, 如來語契實無虛妄.”

27) 『宗鏡錄』第99卷.

“靈明廓徹, 廣大虛寂.”

28) 『大方廣佛華嚴經疏疏演義鈔』第33卷(大正新脩大藏經第 36 冊 No.1736).

“如鏡現像不揀淨穢”

『法華經意語』(卍新纂續藏經 第31冊 No.0613).

“既克果不揀邪正, 豈不如蓮之不揀淨穢也.”

29) 『妙法蓮華經』第4卷.

“諸菩薩敬順佛意, 并欲自滿本願, 便於佛前, 作師子吼而發誓言, 『世尊, 我等於如來滅後, [周旋]往返十方世界, 能令衆生書寫此經, 受持讀誦, 解說其義, 如法修行, 正憶念. 皆是佛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周旋’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無非’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周旋’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20) 殊途雖渺邈 <『楞伽經』說 五乘之人, 性[法非(既有)]異, 修發殊途, 唯佛所知, 餘不自測.>

校勘: ① 이 對校字 [法非(既有)]는 再雕藏本에는 ‘法非’로 되어 있고, 初雕藏本·趙城藏本에는 ‘既有’로 되어 있다. “性法非異”와 “性既有異”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 즉 “性法非異”는 五乘之人的 불성이 같다는 의미이고, “性既有異”는 五乘之人的 불성이 다르다는 의미이다. ② 再雕藏本の ‘法非’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既有’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③ 혹은 ‘既有’가 開寶藏本 본래의 文字이고, ‘法非’는 再雕藏本에서 수정된 문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21) 滿願生兜率 <『法華經』云 卽往[往(兜)]率天上, 彌勒菩薩所有三十二相 大菩薩衆而於中生, 卽滿願也.>

校勘: ① 이 對校字 [往(兜)]은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³⁰⁾에 ‘兜’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兜’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往’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오류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兜’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22) 大悲慈忍力<…『法華經』[無(云)] 大慈悲爲室, 柔和忍辱衣.>

校勘: ① 이 對校字 [無(云)]의 出處는 『法華經』이 분명하다.³¹⁾ 따라서 初雕藏

之威力, 唯願世尊, 在於他方 遙見守護.”

30) 『妙法蓮華經』 第7卷.

“有人受持讀誦, 解其義趣, 是人命終爲 千佛授手, 令不恐怖, 不墮惡趣, 卽往[兜]率天上, 彌勒菩薩所. 彌勒菩薩有三十二相, 大菩薩衆所共圍繞, 有百千萬億天女眷屬, 而於中生. 有如是等功德利益.”

31) 『妙法蓮華經』 第4卷.

本・趙城藏本の ‘云’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無’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云’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23) 昏迷爲假因 <…『法華經』云 非我[僧(傭)]力得物之處, 不如往至貧里等也.>

校勘: ① 이 對校字 [僧(傭)]은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³²⁾에 ‘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傭’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僧’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傭’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24) 應審信心是 <應當審諦, 觀察信心, 是衆德之本. 故『慈恩疏』云 信能[何(荷)]至德之嘉, 依等.>

校勘: ① 이 對校字 [何(荷)]는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³³⁾에 ‘荷’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荷’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何’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荷’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25) 顛倒何爲是 <顛倒者, 業惑縈纏, 煩惱所覆. 何爲是者, 一切有情, 莫能覺悟. 『楞嚴經』云 遺失眞性, 顛倒行[來(事)].>

校勘: ① 이 對校字 [來(事)]는 出處인 『楞嚴經』의 原文³⁴⁾에 ‘事’로 되어 있다.

“大慈悲爲室, 柔和忍辱衣, 諸法空爲座, 處此爲說法.”

32) 『妙法蓮華經』 第2卷.

“竊作是念: 此或是王, 或是王等. 非我[傭]力得物之處. 不如往至貧里, 肆力有地, 衣食易得. 若久住此, 或見逼迫, 強使我作. 作是念已, 疾走而去.”

33) 『阿彌陀經通贊疏』(大正新脩大藏經 第37冊 331張 下段 3行).

“故論亦說有信現觀. 四[荷]至德之嘉. 依毘婆沙論.”

34) 『楞嚴經』 第1卷.

“於是如來普告大衆: 『若復衆生以搖動者, 名之爲塵, 以不住者, 名之爲客, 汝觀阿難頭自動搖, 見無所動. 又汝觀我手自開合, 見無舒卷. 云何汝今以動爲身, 以動爲境, 從始洎終念念生滅, 遺失眞性, 顛倒行[事], 性心失真, 認物爲己, 輪迴是中, 自取流轉.』”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事’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來’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事’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26) 人心多不定 <人心者, 摠標凡位. 不定者, 未證聖流, 逐[觀(境)]情生, 隨緣念變, 卽不定也. 維摩經云 幻無定相.>

校勘: ① 이 對校字 [觀(境)]은 再雕藏本에는 ‘觀’으로 되어 있고, 初雕藏本·趙城藏本에는 ‘境’으로 되어 있다. ‘境’은 ‘逐境情生’의 용례³⁵⁾가 『華嚴經合論簡要』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觀’ 또한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誤謬는 아니다. 이 對校字 ‘觀’과 ‘境’의 관계는 潤文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觀’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境’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③ 혹은 ‘境’이 開寶藏本 본래의 文字이고, ‘觀’은 再雕藏本에서 수정된 문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3.3 御製秘藏詮 제5권

(27) 樂道信非常 <樂道者, 謂心遊大道, 理契非常, 體用昭彰, 非言象之所及. 『華嚴經』云 信是道[元(源)]功德母. 故曰非常.>

校勘: ① 이 對校字 [元(源)]은 『金園集』과 『四明尊者教行錄』의 引用文³⁶⁾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源’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元’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源’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35) 『華嚴經合論簡要』卷4(CBETA X04 No.225).

“但隨境起, 逐境情生起於我見.”

36) ① 『金園集』(卍新纂續藏經 第五十七冊 No.950, p0001c191020): “諸佛子欲求此戒須發信心, 華嚴經云, 信是道[源]功德母.”

② 『四明尊者教行錄』(大正新脩大藏經 第四十六冊 No.1937, p0859a07).

“華嚴云, 信是道[源]功德母.”

(28) 悟達理無偏 <情生智隔, [想(想)(相)]變體殊, 迷悟混融, 邪正交雜, 顯一衆悟, 於理何偏. …>

校勘: ① 이 對校字 [想(想)(相)]은 『續傳燈錄』 등에 기재된 ‘情生智隔, 想變體殊,’의 용례³⁷⁾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想’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趙城藏本の ‘相’은 誤刻으로 추정된다. 사실 趙城藏本 板本 上에 보이는 ‘相’은 그 자형이 ‘相’字로서의 완전한 모양이 아니라 ‘想’에서 ‘心’이 缺落된 상태의 ‘相’字이다. ③ 다른 한편 趙城藏本の ‘相’은 誤刻이 아니라 원래 그 저본인 개보장에서 ‘想’가운데 ‘心’이 缺落되었던 것이고, 趙城藏本에서는 이 상태 그대로 覆刻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3.4 御製秘藏詮 제6권

(29) 澄源不暫停<[澄(澄)(經)]源眞性, 常自湛然, 出生諸法. 故不暫停. …>

校勘: ① 이 對校字 [澄(澄)(經)]은 본문[正文]에 기재된 “澄源”의 용례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澄’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經’은 趙城藏本の 誤謬로 추정된다.

(30) 寤寐常存想 <浮生如夢, 塵劫如川, 六趣輪迴, 念念生滅. 『楞嚴經』云 其形[離(雖)]寐, 聞性不昏也.>

校勘: ① 이 對校字 [離(雖)]는 出處인 『楞嚴經』의 原文³⁸⁾에 ‘雖’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雖’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離’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雖’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37) 『續傳燈錄』 卷33(CBETA T51 No.2077), 『五燈全書』 卷91(CBETA X82 No.1571), 『圓覺經心鏡』 卷3(CBETA X10 No.254).

“情生智隔, 想變體殊.”

38) 『楞嚴經』 第4卷.

“阿難, 是人夢中, 豈憶靜搖閉閉通塞, 其形[雖]寐, 聞性不昏.”

(31) 疑水諭迷情 <疑水者, 『楞嚴經』云 譬如, 兩人同觀水中之日, 一東一西, 則各有日隨二人去, [宛(苑)]轉虛妄, 無可憑據. 將論凡夫迷情妄執.>

校勘: ① 이 對校字 [宛(苑)]은 出處인 『楞嚴經』(再雕藏本·趙城藏本)의 原文³⁹⁾에 ‘苑’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再雕藏本の ‘苑’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宛’은 원래 底本인 開寶藏本에 初雕藏本·趙城藏本과 같이 ‘苑’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再雕藏本에서 ‘宛’으로 수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3.5 御製秘藏詮 제7권

(32) 賢皆遇本修 <一切賢聖皆發正心, 修於本行, 以成正覺. 『楞嚴經』云 因地不眞, 果招[迂(紆)]曲. 如噬臍人, 欲誰成就.>

校勘: ① 이 對校字 [迂(紆)]는 出處인 『楞嚴經』의 原文⁴⁰⁾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紆’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迂’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紆’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33) 十方調[法(御)]主 <十方者, 顯諸佛也. 調御主者, 卽十號中第八, 巧攝群情號. 『寶積經』云 天人象馬調御師.>

校勘: ① 이 내용의 註釋에는 “調御主者, 卽十號⁴¹⁾中第八”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對校字 [法(御)]는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御’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法’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

39) 『楞嚴經』 第4卷.

“富樓那, 如一水中, 現於日影, 兩人同觀水中之日, 東西各行, 則各有日隨二人去. 一東一西, 先無准的, 不應難言, 此日是一, 云何各行, 各日既雙, 云何現一, [宛]轉虛妄, 無可憑據.”

40) 『楞嚴經』 第6卷.

“況復法王如何妄竊, 因地不直, 果招[迂(紆)]曲. 求佛菩提如噬臍人, 欲誰成就.”

41) 十號: 부처님의 열 가지 이름. 불타(佛陀)의 위덕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칭호도 무량(無量)해야 할 것이므로 열 가지로 불타의 무량공덕(無量功德)을 호칭해 온 것이 십호이니, 이는 여래(如來)·응공(應供)·정변지(正遍知)·명행족(明行足)·선서(善逝)·세간해(世間解)·무상사(無上士)·조어장부(調御丈夫)·천인사(天人師)·세존(世尊) 등임.

本・趙城藏本の ‘御’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34) 聖言一念思 <無漏言[有(旨)] 端坐思惟 刹那了知 不在多念 …>

校勘: ① 이 對校字 [有(旨)] 중에서 ‘旨’⁴²⁾와 ‘有’⁴³⁾는 다른 經典에서 그 용례가 확인된다. ② 再雕藏本の ‘有’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旨’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문자로 생각된다.

(35), (36) 自在法中師 <法非帆度, 隨性識以化緣, 於相無[清(情)], 乃萬[經(緣)]而皆泯. 『華嚴經』云 當如法王得自在.>

校勘(35): ① 이 對校字 [清(情)]은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情’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清’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情’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문자로 생각된다.

校勘(36): ① 이 對校字 [經(緣)]은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緣’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經’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緣’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문자로 생각된다.

42) 『大般涅槃經集解』第69卷(CBETA T37 No.1763).

“八美經之德也, 淨則涅槃, 因即是行, 涅槃三法, 皆是因, 無法非因, 言一切法是, 而義不決定, 言旨未顯, 故定之也.”

43) 『成唯識論了義燈』(大正新脩大藏經第 43冊 No.1832).

“言未至定有十一根者, 謂信等五・三無漏根・喜・捨・意根, 以不生彼無色根・命. 云何有意, 意即第七, 隨生繫故答略爲二解, 一約三乘通意根說, 即次第滅, 二據大乘有第七識起無漏說. 問有漏五識第四定無, 無漏言有, 有漏喜. 樂第四定無, 無漏喜樂第四定有, 答有二解. 一云以義齊之亦許得有, 如彼五識, 若不許五通四禪者, 復無此難, 又如大乘見道, 必第四定, 初地既言極喜故有喜受, 樂准此[1]誠. 二云不齊解, 佛成事智不與喜俱, 相巖動故第四定無, 起依色根, 第四定中有五色根故有五識, 然要集不許無漏五識通四禪者不爾, 無文遮故問何故明遍行中, 但舉觸等不言作意, 答有二解. 一云以順前故, 前但言受・想・思等所依爲業, 不言作意. 二云順經部師立餘心所, 以作意等思之分位, 舉思攝未故不盡陳.”

3.6 御製秘藏詮 제8권

(37), (38) 朝聞及[薄(博)]暮 <上[士(士)(士)]趣道, 朝暮精勤, 聞自耳根, 發明心識. 『遺教經』云 晝則勤心, 修習善法, 初夜後夜, 亦勿有廢.>

校勘(37): ① 이 對校字 [薄(博)]은 ‘저녁’의 의미인 ‘薄暮’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の ‘薄’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것은 원래 再雕藏本の 底本인 開寶藏本에 初雕藏本·趙城藏本과 동일하게 ‘博’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재조장본에서 ‘薄’으로 修訂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校勘(38): ① 이 對校字 [士(士)(士)]는 單語인 ‘上士’⁴⁴⁾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士’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士’는 趙城藏本の 誤刻으로 추정된다.

3.7 御製秘藏詮 제9권

(39) 何能委曲知 <終日勤劬, 寧[加(知)]佛用, 契神卽物, 委曲幽通. 『華嚴經』云 善知衆生種種根欲.>

校勘: ① 이 對校字 [加(知)]는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知’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加’는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知’는 그 底本인 開寶藏本(修訂本)의 문자로 생각된다.

(40) 妙道入虛無 <出世眞心, 名爲妙道, 了諸法假, 方達虛無, 化香有情, 同歸性海. 『法華經』云 寶處[有(在)]近, 汝等去來.>

校勘: ① 이 對校字 [有(在)]는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⁴⁵⁾에 ‘在’로 되어 있다.

44) 上士는 菩薩의 稱呼이다(『釋氏要覽·稱謂』引『瑜珈論』: “無自利利他者, 名下士, 有自利無利他者, 名中士, 有二利, 名上士.”).

45) 『妙法蓮華經』 第3卷.

“爾時, 導師知此人衆, 既得止息, 無復疲倦, 卽滅化城, 語衆人言: 汝等去來寶處[在]近.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在’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在’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이고, 再雕藏本の ‘有’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으로 생각된다.

(41) 慈恩信有孚 <慈忍之心, 佛及菩薩恒能[不(捨)]離, 爲諸衆生, 作大導師, 隨聲救苦, 應念卽至. 『法華經』云 不信是經, 卽爲大失.>

校勘: ① 이 對校字 [不(捨)]는 再雕藏本에는 ‘不離’로 되어 있고, 初雕藏本·趙城藏本에는 ‘捨離’로 되어 있다. 再雕藏本の ‘恒能不離’는 다른 經典에서 그 용례⁴⁶⁾가 확인된다. ②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捨’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 본래의 문자이고, ‘不’은 再雕藏本에서 수정된 문자로 추정된다.

(42) 昏迷道坦途 <凡夫所緣, 觸途成[梵(梵)(擁)], 聖智所了, 皆爲坦然. 『法華經』云 我設是方便, 令得入佛慧>

校勘: ① 이 對校字 [梵(梵)(擁)]은 再雕藏本·初雕藏本에 ‘梵’으로 되어 있고, 趙城藏本에는 ‘擁’으로 되어 있다. ②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梵’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 본래의 文字이고, 趙城藏本の ‘擁’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의 수정된 文字로 생각된다. ③ 그렇다면 趙城藏本の 저본(개보장)은 初雕藏本の 저본(개보장)보다 한층 더 수정된 개보장으로 생각된다.

(43) 威光去復來 <機感緣會, 應迹名來, 永時化終, 韜光而去, 淨住. 天子所問 [經(終)]云 入生死爲往, 應淨還源爲復, 往復之道, 卽去來也.>

校勘: ① 이 對校字 [經(終)]은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の ‘經’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經’은 원래 底本인 開寶藏本에 初雕藏本·趙城藏本과 같이 ‘終’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再雕藏本에서 ‘經’으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向者大城, 我所化作, 爲止息耳. 諸比丘, 如來亦復如是.”

46) 『菩薩念佛三昧經』第4卷.

“恒能不離阿蘭若行, 心常平等憐愍衆生.”

3.8 御製秘藏詮 第21卷

(44) 妙覺玄門 <…『玄贊疏』云 門有二義, 一者體妙具五難, [心(故)]謂難見, 難覺, 難知, 難解, 難入等也. 二難了. 二乘不知. 故經云 一切聲聞辟支佛所不能知也.>

校勘: ① 이 對校字 [心(故)]는 다른 경전에 보이는 “具五難”⁴⁷⁾의 용례 및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故’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心’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故’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45) 六法彌深 <佛位六根六境六識 名爲六法, 此之六法行相難了, 名曰彌深. 於此六法, 廣修六度, 積累十因, 正覺始成, [正(十)]身初會, 悲智雙運, 性相兩融. …>

校勘: ① 이 對校字 [正(十)]은 이 偈頌의 문맥과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十’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正’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十’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46), (47) 三界圓滿 <六欲所居, 名爲欲界, 修諸梵行, 得自定居, 謂之色界. 厭蘊[名(色)]澆, 唯心心所, 四蘊成身, 名無色界. 是名三[思(界)]. 三身具足, 四智圓明, 體用恒如, 依正平等, 名之曰圓. 迹履下因, 道圓上果, 纖瑕永盡, 片善無遺, 謂之曰滿. …>

校勘(46): ① 이 對校字 [名(色)]은 이 偈頌의 문맥과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色’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名’은 그 저본인

47) 아래와 같이 “具五難”의 용례는 經典에 있지만, “具五難心”의 용례는 전혀 없다.

『四分律含注戒本疏科』(卍新纂續藏經第 39冊 No.0713): “初引殺戒具五難”

『涅槃經疏三德指歸』(卍新纂續藏經第 37冊 No.0662): “今解中初斥破興皇八階凡有二失故總斥云不然由具五難卽離八難故云同是一意”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色’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校勘(47): ① 이 對校字 [思(界)]는 이 偈頌의 문맥과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界’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思’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界’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48) 周旋梵會 <…『法華經』云, 爾時, 諸梵王及諸天帝 釋護世四[大(天)]⁴⁸⁾王及大自在天 并餘諸天衆眷屬百千萬, 恭信合掌, 禮請我轉法輪. …>

校勘: ① 이 對校字 [大(天)]은 出處인 『法華經』의 原文에 ‘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天’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大’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天’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49) 因從十地 <… 永斷十重障, 求無上菩提, … 五二乘般(若(若)(涅)槃障 …>

校勘: ① 이 對校字 [若(若)(涅)]은 다른 經典에 기재된 ‘般涅槃障’의 용례⁴⁹⁾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趙城藏本の ‘涅’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앞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若’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 원래의 文字이고, 趙城藏本の ‘涅’은 開寶藏本의 수정된 文字로 생각된다. ③ 趙城藏本の 저본(개보장)은 初雕藏本의 저본(개보장)보다 한층 더 수정된 개보장으로 추정된다.

(50), (51), (52) 衆生寂滅於顛倒 <地水火風, 衆法合成, 名曰衆生. 妙理寂然, 雜諸[名(色)]相, 名爲寂滅. 有情於此, 而生妄想, 名爲顛倒, 於無法之處,

48) 『法華經會義』 卷1(CBETA X32 No.616).

“爾時諸梵王及諸天帝釋護世四[天]王及大在天并餘諸天衆眷屬百千萬恭敬合掌禮請我轉法輪我即自思惟若但讚佛乘衆生沒在苦不能信是法破法不信故墜於三惡道 ….”

49) 『華嚴經吞海集』 卷2(CBETA X08 No.239): “斷下乘般涅槃障”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8(CBETA T35 No.1735): “故此地中斷於下乘般涅槃障者”

『仁王經疏法衡鈔』 卷6(CBETA X26 No.519): “斷隨等者論云下乘般涅槃障.”

執於有法. 『楞嚴經』云, 云何汝今以動爲身, 以動爲境, 從始泊終, 念念生滅, 道失真性, 顛倒行[車(事)], 性心失真, 認物爲己, 輪迴是中, 取自流轉. 又云, 若此妙覺, 本妙覺明, 與[女(如)]來心, 不增不減, 無狀忽生, 山河大地, 諸有爲相.>

校勘(50): ① 이 對校字 [名(色)]은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色’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名’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文字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色’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校勘(51): ① 이 對校字 [車(事)]는 出處인 『楞嚴經』의 原文⁵⁰에 ‘事’로 되어 있다. 따라서 ‘事’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車’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事’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校勘(52): ① 이 對校字 [女(如)]는 出處인 『楞嚴經』의 原文⁵¹에 ‘如’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如’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女’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如’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53) 想千世以何殊 <…『華嚴經』云, 一念普觀無量劫, 無去無來, 亦無[住(○)]. 如是了知三世事, 超諸方便, 成十力.>

校勘: ① 이 對校字 [住(○)]은 出處인 『華嚴經』의 原文⁵²에 ‘住’가 있다. 따라서 再雕藏本の ‘住’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글자는 ‘住’와 ‘進’이 합쳐진 형태의 글자로 되어 있다. 원래 底本인 開寶藏本에 初雕藏本·趙城藏本

50) 『楞嚴經』第1卷.

“云何汝今以動爲身, 以動爲境, 從始泊終念念生滅, 遺失真性, 顛倒行[事], 性心失真, 認物爲己, 輪迴是中, 取自流轉.”

51) 『楞嚴經』第4卷.

“富樓那言, 若此妙覺本, 妙覺明, 與[如]來心, 不增不減, 無狀忽生山河大地諸有爲相.”

52) 『華嚴經』(周本) 第13卷.

“說此頌言. 一念普觀無量劫, 無去無來亦無[住], 如是了知三世事, 超諸方便成十力.”

과 같이 ‘住’가 脫漏되어 있던 것인데, 재조장본에서 이 ‘住’를 添入·수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그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되어 ‘住’와 ‘進’이 합쳐진 형태의 글자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③ 한편 趙城藏本(中國 國家圖書館所藏本)에는 이 ‘住’가 ‘無’와 ‘如’字 사이에 加筆되어 있는 상태이다.

(54), (55) 鄙妄想之[縱(蹤)]橫 <謂宣甚深妙法, 能祛妄想於稠林. 卽虛妄之法奔馳三界, 輪轉四生[縱(蹤)]橫自在. 故『楞嚴經』云, 三界虛妄, 猶若空花.>

校勘: ① 이 對校字 [縱(蹤)] 중에서 ‘縱’과 ‘蹤’은 異體字(通用字)의 관계로서 通用字가 正字로 수정된 것이다. ② 初雕藏本·趙城藏本の ‘蹤’은 開寶藏本 본래의 문자이고, ‘縱’은 再雕藏本에서 수정된 문자로 추정된다.

(56) 聖種者積善功而化之 <聖種者, 具成佛之性, 顯如來[之(之)(二)]心, 果從因生 …>

校勘: ① 이 對校字 [之(之)(二)]는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再雕藏本の ‘之’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趙城藏本の ‘二’는 誤刻으로 추정된다.

(57) 降時而九龍吐水<…『周書異記』云, 周第四主昭王二十四年, 甲寅之歲, 四月八日平旦, 江河泛漲, 枯井[湧(湧)(勇)]泉, 宮殿人舍, 山川大地, 咸悉震動, …>

校勘: ① 이 對校字 [湧(湧)(勇)]은 내용 및 趙城藏本에 기재된 ‘勇’의 字形을 미루어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湧’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趙城藏本の ‘勇’은 趙城藏本の 오류인데, ‘湧’가운데 ‘氵’이 缺落된 형태의 글자이다. 원래 趙城藏本の 저본인 開寶藏本에 이 ‘湧’字가 ‘湧’가운데 ‘氵’이 缺落되어 ‘勇’로 되어 있던 것인데, 趙城藏本에서 이 ‘勇’字가 그대로 覆刻된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趙城藏本の 오각으로 볼 수도 있겠다.

(58) 雙林之樹下隨喜一念而譬喻昏衢 <案『西城記』云, 拘[口(尸)]那城西南

三里, 有跋提河, 金沙渾流 …>

校勘: ① 이 對校字 [口(尸)]는 다른 經典에 보이는 “拘[尸]那城”의 용례⁵³⁾로 볼 때,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尸’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初雕藏本·趙城藏本の ‘尸’는 開寶藏本 본래의 문자이다. 再雕藏本の ‘口’는 원래 再雕藏本의 저본인 開寶藏本에 이 ‘尸’字가 ‘尸’가운데 ‘ノ’이 缺落되어 ‘口’의 상태로 되어 있던 것인데, 再雕藏本에서 이 ‘口’가 그대로 覆刻된 것으로 생각된다. 혹은 再雕藏本에서 발생된 오류로 볼 수도 있겠다.

(59) 應現四十九年<… 中間, 或談般若, 或說密嚴, 或演楞伽, 或宣深密, 或向
切利天上, 答摩耶重恩, 或生毘衛羅城, 報父[王(王)(主)]孝義白鷺池側
靈鷲山中給孤獨園摩竭陀園…>

校勘: ① 이 對校字 [王(王)(主)]는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再雕藏本·初雕藏本の ‘王’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趙城藏本の ‘主’는 誤謬로 추정된다.

3.9 御製秘藏詮 제13권

(60) 階梯來往用 <往來者, 三世也. 謂三世諸聖, 皆依此道, 階級而[脩(修)].
苟或得旨忘詮者, 『楞伽經』云 不從一地至一地.>

校勘: ① 이 對校字 [脩(修)] 중에서 ‘脩’와 ‘修’는 異體字의 관계로서 俗字가 正字로 수정된 것이다. ② 再雕藏本の ‘脩’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修’는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61), (62) 諸聖證其功 <登地諸聖, 親證眞如, 行盡果成, 功超[千(十)]地. 『大乘
密嚴經』云 聖人自智境, 依[此(此此)]入諸地, 自利及利他, 功業悉成就.>

校勘(61): ① 이 對校字 [千(十)]은 본문에 기재된 “功超十地”의 용례⁵⁴⁾ 및

53) 『大唐西域記』第8卷.

“昔者如來將取寂滅, 北趣拘[尸]那城, 南顧摩揭陀國.”

54) 『續古尊宿語要』第3卷(已新纂續藏經第 68冊 No.1318).

내용⁵⁵⁾으로 볼 때, 初雕藏本·開寶藏本の ‘十’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千’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오류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十’은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校勘(62): ① 이 對校字 [此(此此)]는 出處인 『大乘密嚴經』의 原文⁵⁶⁾에 ‘此’로 되어 있다. 따라서 初雕藏本·開寶藏本の ‘此此’ 가운데 ‘此’는 衍字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此’는 원래 底本인 開寶藏本에 初雕藏本·開寶藏本과 같이 ‘此此’로 되어 있던 것인데, 再雕藏本에서 ‘此’가 삭제되어 ‘此’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63), (64) 大海波瀾遠 <[注(汪)]洋性海, 實際無涯, 心識波瀾, 虛舟恒濟, 心通至[土(士)], 彼岸何遙. 『起信論』云, 無量功德藏, 法性真如海.>

校勘(63): ① 이 對校字 [注(汪)] 은 ‘汪洋’의 옳⁵⁷⁾ 및 이 偈頌의 내용으로 볼 때, 初雕藏本·開寶藏本の ‘汪’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注’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오류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汪’은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校勘(64): ① 이 對校字 [土(士)]는 再雕藏本에 ‘土’로 되어 있고, 初雕藏本·開寶藏本에는 ‘士’로 되어 있다. ② 再雕藏本の ‘土’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士’는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③ 다른 한편, ‘士’는 開寶藏本 본래의 문자이고, ‘土’는 再雕藏本에서 수정된 문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65) [皆(智)]願過諸已 <謂佛智願, 超諸十地, 出過二乘, 已證解脫. 『瑜伽論』云 如實安立, 清淨妙智, 爲利有情, 起此願故.>

“莫非功超十地, 果滿三祇.”

55) 十地: 불교에서 大乘의 菩薩 수행 과정상에서 거치게 되는 10단계의 境地.

56) 大乘密嚴經: “是名現法樂 聖人自智境 依[此]入諸地 淨除無始惡.”

57) 『淨土證心集』 卷3(CBETA X62 No.1196).

“性海汪洋, 非以指南而按之, 其不迷於四方者鮮矣.”

校勘: ① 이 對校字 [皆(智)]는 註釋의 내용인 “謂佛智願, 超諸十地, 出過二乘, 已證解脫.” 가운데 “智願”의 용례로 볼 때, 初雕藏本·開寶藏本の ‘智’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皆’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智’는 開寶藏本(修訂本)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66) 空歸實相中 <法喻實[祖(相)], 趣向菩提, 空有二邊, 俱無所立, 雖歸中道, 亦無所得. 『維摩經』云 不在內外, 不在中間.>

校勘: ① 이 對校字 [祖(相)]은 本文의 내용인 “空歸實相中” 가운데 “實相”의 용례로 볼 때, 初雕藏本·開寶藏本の ‘相’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再雕藏本の ‘祖’는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인습된 것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相’은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67) 聖語普皆同 <過現未來, 三世諸佛, 一音始震, [万(萬)]法皆如. …>

校勘: ① 이 對校字 [万(萬)] 중에서 ‘万’과 ‘萬’은 異體字의 관계로서 俗字가 正字로 수정된 것이다. ② 再雕藏本の ‘万’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萬’은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68) 山河尙改變 <山河器世[間(間)], 有成住之功, 安免推遷, 尙猶改變, 未若出離穢方, 常居淨刹. 『法華經』云 大火所燒時, 我此土安隱.>

校勘: ① 이 對校字 [間(間)] 중에서 ‘間’과 ‘間’은 同字의 관계이다. ‘間’은 ‘間’의 古字이다. ② 再雕藏本の ‘間’은 그 저본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이고, 初雕藏本·開寶藏本の ‘間’은 開寶藏本(修訂本)의 수정된 문자로 생각된다.

4. 『御製秘藏詮』의 文字異同 類型과 그 原因

이제 앞 장에서 살펴본 68件의 文字異同에 대한 校勘 내용에 근거하여 먼저 이들에 대한 文字異同 對校表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對校表에 기재된 “冊, 面, 行, 字”의 출처는 『中華大藏經』(中華書局編, 1984)이다.

<表 4> 『御製秘藏詮』 文字異同 對校表

項次	1	2	3	4	5	6	7	8	9	10
類型	A-4	A-1	A-1	B-1	A-1	A-1	A-2	B-1	B-2	A-4
卷	1	1	1	1	1	1	1	1	1	1
冊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面	676	676	677	678	679	679	680	680	680	680
行	中19	中2	下16	下10	中8	中11	下2	下4	下9	下10
字	左8	左	左1	右末	左	右	左末	右4	左末	左1
趙城	如	如彼	其	比	慧燈	昏昧	法	持	茵	花針
初雕	如	如彼	其	此	慧燈	昏昧	法	特	茵	花針
再雕	爲	如波	甚	此	養燈	昏明	○	特	茵	苞針

項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類型	A-1	B-2	C	B-1	A-4	A-4	A-4	A-1	A-1	A-4
卷	1	1	1	1	3	3	3	3	3	3
冊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面	680	682	684	684	691	691	692	692	692	692
行	下14	中10	上17	中10	下8	下8	上7	上9	上9	上10
字	右10	左	左	右1	右8	右末	左2	右末	左1	右
趙城	毫末	通達	任眞	起	實道	事	揀	周	旋	既有
初雕	毫末	退達	經眞	超	實道	事	揀	周	旋	既有
再雕	毫木	退達	住眞	超	道	實事	非	無	非	法非

項次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類型	A-1	A-1	A-1	A-1	A-1	A-4	A-1	B-1	B-1	A-1
卷	3	3	3	3	3	3	5	5	6	6
冊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面	692	692	692	692	693	694	704	705	710	712
行	上13	上16	中10	下2	下8	下9	中8	中2	中8	中11
字	右7	左1	右	左5	左	右16	右	右5	右	右
趙城	兜	云	傭力	荷	行事	境	道源	相	經	雖寐
初雕	兜	云	傭力	荷	行事	境	道源	想	澄	雖寐
再雕	往	無	僧力	何	行來	觀	道元	想	澄	離寐

<表 4> 『御製秘藏詮』文字異同 對校表(계속)

項次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類型	A-2	A-4	A-1	A-5	A-4	A-4	A-2	B-1	A-4	A-1
卷	6	7	7	7	7	7	8	8	9	9
冊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面	712	714	715	717	718	718	720	720	726	728
行	中16	下19	下4	中12	下18	下18	下11	下11	中19	上17
字	右	左1		右	右14	左1	下11	右	右	左
趙城	宛轉	紆	調御	言旨	情	緣	博	上土	寧知	在近
初雕	宛轉	紆	調御	言旨	情	緣	博	上土	寧知	在近
再雕	宛轉	迂	調法	言有	清	經	薄	上土	寧加	有近

項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類型	A-3	B-2	A-2	A-4	A-4	A-1	A-1	A-1	B-2	A-4
卷	9	9	9	21	21	21	21	21	21	21
冊	73	73	73	73	73	73	73	73	73	73
面	728	728	729	845	845	845	845	846	846	846
行	中15	下14	下5	中5	中21	下7	下7	上2	上13	下13
字	右	右	右15	右1	右1	右末	左末	右9	左7	右9
趙城	捨離	成擁	終	故	十	色	界	天	涅	色
初雕	捨離	成梵	終	故	十	色	界	天	若	色
再雕	不離	成梵	經	心	正	名	思	大	若	名

項次	51	52	53	54	55	56	57	58	59
類型	A-1	A-1	A-2	A-3	A-3	B-1	B-1	A-1	B-1
卷	21	21	21	21	21	21	21	21	21
冊	73	73	73	73	73	73	73	73	73
面	846	846	847	848	848	849	849	850	764
行	下14	下15	下10	上5	上6	中2	下22	中9	下12
字	左16	左10	左13		右11	左末	右9	右末	右10
趙城	事	如	○如	蹤	蹤	二	勇	尸	主
初雕	事	如	○如	蹤	蹤	之	湧	尸	王
再雕	車	女	住如	縱	縱	之	湧	口	王

項次	60	61	62	63	64	65	66	67	68
類型	A-4	A-1	A-2	A-1	A-4	A-1	A-1	A-4	A-4
卷	13	13	13	13	13	13	13	13	13
冊	73	73	73	73	73	73	73	73	73
面	3	5	5	5	5	6	7	8	12
行	4	4	4	17	17	13	21	18	20
字	左10	右1	右15	右1	左9	1	右6	左5	右5
開寶	修	十地	此	汪洋	至土	智	相	萬	間
初雕	修	十地	此	汪洋	至土	智	相	萬	間
再雕	脩	千地	○	汪洋	至土	皆	祖	万	間

끝으로 68件의 文字異同에 대한 유형과 원인을 정리 분석하여 表로 작성하면 다음의 <表 5> “文字異同의 類型別 綜合的 分析”과 같다.

<表 5> 文字異同의 類型別 綜合的 分析

類型	詳細 類型	類型 內容	文字 異同 件數	百分 率
A		初雕藏本·趙城藏本이 동일하고, 再雕藏本만 다른 文字異同	54	81
	A-1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因習된 문자이동	26	39
	A-2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修訂된 문자이동	6	9
	A-3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과 다르게 修訂된 문자이동	3	4.5
	A-4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가 收容된 문자이동	18	27
	A-5	原因未詳의 文字異同	1	1.5
B		再雕藏本·初雕藏本이 동일하고, 趙城藏本만 다른 문자이동	13	19.5
	B-1	趙城藏本에서 발생된 誤謬	9	13.5
	B-2	趙城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の 再修訂된 문자가 收容된 文字異同	4	6
C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이 각각 다른 文字異同	1	1.5
3개	6개		68件	100%

5. 結 言

본 연구는 『御製秘藏詮』 21卷(부록 포함 21권)의 大藏經 板本을 조사 분석한 다음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또는 開寶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을 상호 대교하여 이들 大藏經 板本에 나타나는 文字異同을 校勘하고, 이 文字異同에 대한 類型과 그 원인을 규명한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結言에 대신하고자 한다.

1) 『御製秘藏詮』은 2種의 板本이 있다. 하나는 20卷本(부록 포함 21권)이고 다른 하나는 30卷本이다. 20卷本(부록 포함 21권)은 端拱 원년(988) 12월에 56人이 註解를 한 다음 開寶藏에 編聯入藏된 『御製秘藏詮』 20卷과 附錄 1卷(『佛賦

(御製佛賦)·『歌行(詮源歌)』인 것이다. 30卷本은 端拱 2년(989) 11월에 12인이 註釋을 한 다음 開寶藏에 編聯入藏된 御製類(御製秘藏詮幽隱律詩 4卷, 御製秘藏詮懷感一百韻詩 4卷, 御製秘藏詮懷感廻文五七言詩 1卷)가 추가되어 성립된 것이다. 그리고 이 30卷本은 늦어도 咸平年間(998-1003) 이전에 성립되었고, 『御製秘藏詮』 총 21卷(부록에 해당되는 제21권 포함)이 간행된 端拱 元年(988) 이후, 『御製秘藏詮』 22~30卷에 해당되는 기타의 御製詩가 刊行된 端拱 2年(989) 또는 30卷本 『御製秘藏詮』이 高麗에 전래된 淳化 2年(991)이전에 『御製秘藏詮』 21卷(부록 포함)과 기타의 御製詩 9卷이 合編되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2) 『御製秘藏詮』의 大藏經 板本으로는 현재 다음과 같은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開寶藏本이 현재 진존되고 있다.

- (1) 開寶藏本 『御製秘藏詮』 총 1권(美國 하버드大學校所藏本, 제13권)
- (2) 再雕藏本 『御製秘藏詮』 총 30권(高麗大藏經研究所의 高麗大藏經 印經本, 30권 全卷)
- (3) 初雕藏本 『御製秘藏詮』 총 20권(日本 南禪寺所藏本, 제17권과 제22~30권을 제외한 20권)
- (4) 趙城藏本 『御製秘藏詮』 총 20권(中國 國家圖書館所藏本, 제2, 4, 10, 12, 13, 15, 17, 24, 25, 26권을 제외한 20권).

3) 『御製秘藏詮』 21권(부록 포함 21권) 가운데 『開寶藏』의 覆刻本인 趙城藏本(또는 開寶藏本), 初雕藏本, 再雕藏本 등 3本の 상호 대조가 가능한 제1, 3, 5, 6, 7, 8, 9, 13, 21권 총 9권을 對校하여 조사된 文字異同은 총 68件이었고, 이들 68件의 文字異同에 대해 교감을 進行하여 문자이동의 유형과 원인이 다음과 같이 정리 분석되었다.

(1) 유형 A: 初雕藏本·趙城藏本이 동일하고, 再雕藏本만 다른 문자이동

- ① 유형 A-1: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因習된 文字異同

- ② 유형 A-2: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誤謬가 修訂된 文字異同
 - ③ 유형 A-3: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과 다르게 修訂된 文字異同
 - ④ 유형 A-4: 再雕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初本)의 문자가 收容된 文字異同
 - ⑤ 유형 A-5: 原因未詳의 文字異同
- (2) 유형 B: 再雕藏本·初雕藏本이 동일하고, 趙城藏本만 다른 문자이동
- ① 유형 B-1: 趙城藏本에서 발생한 誤謬
 - ② 유형 B-2: 趙城藏本에서 그 底本인 開寶藏本의 再修訂된 문자가 收容된 文字異同
- (3) 유형 C: 再雕藏本·初雕藏本·趙城藏本이 각각 다른 文字異同

결론적으로 『御製秘藏詮』 初雕藏本の 文字異同은 거의 대부분 開寶藏 修訂本の 覆刻本인 趙城藏本과 일치하는 開寶藏의 수정된 문자이었다. 그리고 再雕藏本の 文字異同은 再雕藏本 자체에서 수정된 것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가 수정되지 않은 開寶藏 원래의 문자이었다. 이것은 高麗大藏經 가운데 『御製秘藏詮』의 경우 初雕藏本은 開寶藏 修訂本을 바탕으로 해서 간행된 것이고, 再雕藏本은 開寶藏 初本을 바탕으로 해서 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 문헌>

- 小野玄妙. 『佛書解説大辭典』. 別卷. 東京: 大同出版社, 1936.
- 李箕永. “高麗大藏經, 그 歷史와 意義.” 『高麗大藏經』 48冊. 1976.
- 千惠鳳. “韓國의 古代版畫 - 初藏 御製秘藏詮의 木版畫.” 『季刊美術』 제3호 (1977).
- 呂澂. “宋藏蜀版異本考.” 『大藏經研究集編』(上). 大乘文化出版社, 1977.
- 中村菊之進. “宋開寶版大藏經構成考.” 『密教文化』 145(1984).
- 中華書局編. 『中華大藏經』. 1984.
- 湖林博物館編. 『湖林博物館所藏 初雕大藏經 調查研究』. 成保文化財團, 1988.
- 童瑋. “北宋 『開寶大藏經』 雕印考釋及目錄還原.” 書目文獻出版社, 1991.

書誌學研究 第47輯(2010. 12)

竺沙雅章. “宋元版大藏經の系譜.” 『宋元佛教文化史研究』. 汲古書院, 2000.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柳富鉉. “『開寶勅版大藏經』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25집(2003).

柳富鉉. “高麗 再雕大藏經과 大藏目錄의 構成.” 『書誌學研究』 33집(2006).

柳富鉉. “高麗再雕大藏經과 開寶勅版大藏經의 比較 研究.” 『불교학연구』 16집(2007).

柳富鉉. “初雕藏『御製秘藏詮』版畫의 底本과 板刻에 대한 研究.” 『書誌學研究』 45집(2010).

高麗大藏經研究所. 『南禪寺藏 高麗版『初雕本大藏經』 調査完了 報告會 資料集』. 2010.

김은미. “『천청문경』에 대한 고찰.” 『書誌學研究』 45집(2010). 書誌學會.

석혜영·이재구. “南禪寺 所藏『御製秘藏詮』 研究.” 『古印刷文化』 17집(2010).